



▲ 신 동 열 현장소장

친환경 방파제 현장에서 항만건설 안전의 신기원 창출

- 대림산업(주), 삼성물산(주), 세기건설(주),
신진종합(주) 제주의항방파제현장 -

봄 바람에 실려 제주 외항으로 밀려오는 파도에 성공의 의지가 가득하다. **봄**이 의지는 국내 항만 건설의 신기원을 이룩하겠다는 대림산업(주)의 제주 외항 방파제현장(신동열 현장소장)의 의지이기도 하다.

국내 항만 건설 최초로 방파제 안팎의 바닷물이 자유롭게 오가는 “해수교환케이스(Caisson) 공법”과 파도의 세기를 줄여주는 “곡면 슬릿(Slit) 케이스 공법”이 동시에 시도되고 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곳은 대림산업(주)를 비롯한 3개 건설회사가 공동도급으로 시공하고 있다.

제주의항 방파제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한 현장의 신기원도 함께 이룩한다는 태세다.

안전은 내가 지킨다

“안전은 인간 존중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 행위이므로, 인간존중을 기본 철학으로 근로자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안전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근로자 스스로 자기 자신의 안전을 챙기는 안전문화가 필요하다.”

이는 신동열 소장이 현장에서 안전이 왜 필요한지,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지를 일러주는 대목이다.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에 힘을 더해 주는 “아차사고”한건이 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Floating Dock 위(19.5m)에서 케이스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발을 잘못 디더 추락하는 순간, 착용하고 있던 안전벨트 때문에 허공에 매달려 있다 구조되었다.



당시 바닥은 철판으로 되어있어 추락하면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 데, 평소 안전보호구를 잘 착용했고 안전수칙을 잘 지켰던 올바른 안전생활이 근로자 자신을 지킨 사례이다.

이는 평소의 안전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것으로, 안전은 지킬 때야만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시설과 제도가 있어도 이를 이행하려는 근로자의 의지가 없다면 안전의 의미는 없는 것이다. 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결국 회사도, 국가도 아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기에 이곳 현장에서 “안전은 내가 한다”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활동

방파제 현장에서 가장 큰 위험요소는 추락이다. 85개의 대형 케이스 제작·거치 작업을 할 때나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에 있어 추락 위험은 항상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곳 현장에서는 추락위험이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케이스 제작시 거푸집은 Gang Form을 제작하고, 안전난간을 거푸집에 일체화시켜 대형장비를 이용하여 조립·설치하는 것이 그 중 한 예이다.

파도가 크고, 바람이 강하여 방파제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구명함을 비치해 놓아도 유효가 한번 쓸고 간 뒤에는 흔적 하나 찾아 볼 수 없는 이곳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파제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 근로자 모두에게 Safety 자켓을 지급·착용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구명함을 지급하여 작업시 현장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 특성에 맞춰 만약에 있을 추락재해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곳 현장에서는 지역 재해재난 대책본부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안전점검의 날에 재난재해를 대비한 체계적인 훈련을 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도 적극적이다.

자율적인 안전활동, 무재해 준공을 향해

대림산업에서는 전국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전사적인 안전제도가 몇가지 눈에 띈다. 본사에 설치된 중기사업소가 그 중 하나이다. 이곳 현장에는 Floating Dock 3대, 크레인 12대, 바지선 9대, 예인선 3대 등 건설장비가 많은데 본사 중기사업소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전문 인력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관리와 중장비 건설기계의 안전관리 지식을 전달받아 건설장비에 대한 자립안전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자체기구이다.

다음은 안전점검의 날에 본사 임원이 참석하도록 규정화하여, 상위 직급자로부터 솔선수범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1일 안전순찰제도를 통한 전직원 안전관리자화로 함께 안전한 현장 꾸미기에 앞장서고 있다.

반면 현장 독자적으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현장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2중 안전교육(1차 협력업체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2차 직원이 실시하는 공정별 위험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으로 신규 근로자에 대한 안전자아를 형성하게 하는 등 이러한 안전활동이 오늘의 대림산업을 있게 하였고 안전한 기업으로 우리사회에 각인되게 하였다.

근로자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지역발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현장에는 잠수부가 8명이 있다. 이들은 잠수병이라는 직업병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 이에 신동열 소장은 잠수부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챔버시설(감압시설)이 있는 진해와 부산소재 종합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이들의 건강을 검사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 제주도에도 챔버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 있다면 더 자주 잠수부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한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제주도 의료기관에 고가의 챔버시설을 기증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여기저기에서 느낄 수 있다. 도서관에 책 기증과 도서지역에 신문보내기 운동 등이다. 오늘도 방파제 현장에서는 내일있을 지역 청소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는 이래서 따뜻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인지 돌아오는 내내 봄날 햇살처럼 따사로운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다.

근로자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제주외항방파제 현장 식구들은 오늘도 어제와 같은 마음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는 자세로 앞으로 있을 2007년 12월 26일 무재해 준공을 향해 힘찬 매진을 한다.  (최종덕 기자)

제주외항 개발계획

